

# 中國

## 13억 중국 시장을 노려라!

### 중국 환경부문 제10차 5개년계획 중점사업 내역

「10차 5개년 계획 계획기간(2001~2005)동안 중국은 三峽댐 건설

南水北調사업(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수리사업,

三河三湖하수처리장 건설사업, 兩控區화력 발전소 탈황설비공사 및 깨끗한 북경시 만들기」 사업 등

환경보호를 위한 1137개 항목에 총 2620억 원(한화 약3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환경산업

은 그 특성상 장기적이면서 많은 역수의 R&D 투자를 통하여 기술이 개발되고, 개발 수준 이상의 검증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동안 좋은 Idea를 상품화하여 성공한 환경전문 업체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그러나 환경산업은 기술력이 입증되면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등 안정적인 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자체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국제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환경기술에 대한 인식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실제로, 환경산업은 2000년 5,800억 달러에서 2008년 10,229억 달러로 향후 10년 내에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어(환경부, 2000.3) 그 대체된 성장가능성이 높은 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 50대 환경전문업체의 연평균 매출액이 14.7억 달러(약 1조6천억원)에 달하는(산업연구원, 1999.12.2) 등 안정된 수익구조를 검증 받아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선진국가들과 세계 유수의 경제연구소 등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손꼽고 있는 분야이다.

현재 국내 환경시장의 정부 발주 물량만도 매년 7조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예산도 수 조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2003년까지 12.5%의 연평균 성장을 예측하여 2003년에는 약 15조원의 시장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13억 중국인들의 백근 농기만 현대

### 중국시장에 환경비람

인접국가로 있는 중국의 잠재 환경시장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점도 국내 환경시장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2002년 월드컵 본선진출과 2008년 하계올림픽 유치로 국운상승기를 맞고 있으며, APEC정상회담이 중국 경제의 친원지인 상하이에서 열렸고 WTO가입까지 승인되어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이렇게 세계무대에서 화려하게 주목을 받았을까 할 정도로 중국 붐이 일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전 세계가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은 금년에도 연 7.5%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한다. 국내기업들 사이에도 중국진출 붐이 일어 한길같이 "렛츠고 차이나"를 외친다.

### 중국의 중점 사업 및 투자

환경부 해외협력과의 중국 환경부문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있어서 향후 5년 내지 10년 간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경제의 전략적인 구조조정과 개혁개방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중대한 시기가 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태악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올바른 정책의 추진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경보호에 있어서 오랜 기간 관존해 왔던 투자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정부가 주도하고 시장이 촉진작용을 하며 대중이 참여하는 가운데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전면적인 환경오염방지 및 생태환경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가가 확정한 목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 1. 환경보호 투자수요 예측

### 1) 물 오염 방지를 위한투자

「10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COD 배출량 500만톤 감축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가운데 연간 COD 배출량 250만톤 감축 효과를 거두기 위해 도시하수집중처리능력이 2800만톤/일 증대되어야 하며 공업오염원에 의한 COD 배출량 200만톤 감축, 축산 및 양식업에 의한 COD 배출량 50만톤이 감축되어야 한다. 여기에 물 환경 종합 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합해 모두 2700억(위엔)이 필요하다.

### 2)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투자

「10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투자는 주로 석탄발전가공,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도시 청정에

너지 공급, 산업배기가스처리 등에 쓰일 예정이다. 아황산가스 460만톤 감축, 분진 500만톤 감축,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방지를 위해 모두 2800억(위엔)이 필요하다.

### 3) 고체폐기물 처리를 위한투자

「10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도시 쓰레기 無害처리능력 15만톤/일, 위험폐기물 안전처리능력 5000톤/일, 의료폐기물 안전처리능력 1650톤/일 확충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 산업고체 폐기물 종합이용과 처리를 위한 비용을 합해 모두 900억(위엔)이 필요하다.

### 4) 생태보호를 위한투자

「10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중서부지역의 일부 생태기능지구에 대한 응급복구가 필요하다. 15개 국가급 생태기능보호지구, 120개 국가급 중점 생태시범지구, 100개 생태농업縣을 건립하고 40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non-point source 오염규제시범사업을 벌이며 50개 국가급 자연보호지구를 건설하고 현행 155개 국가급 자연보호지구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500억(위엔)이 필요하다.

### 5) 인프라 구축을 위한투자

「10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환경관측 및 생태환경·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 생태기능지구·유역·구역 등에 대한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기능 강화, 데이터의 구축 및 홍보기능 강화, 범집행능력 강화,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위해 100억(위엔)이 필요하다.

「10차 5개년 계획」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7000억(위엔)이 환경보호 명목으로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는 GDP의 1.3%, 고정자산투자 총액의 3.6%에 해당하는 것으로 「9차 5개년 계획」보다는 1%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 2. 투자 출처 분석

### 1) 정부투자

도시 환경 인프라 구축, 유역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생

점점 개방되고 있는 중국시장에 선진 외국인은 벌써부터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태보호 및 환경보호기능 강화 등은 각급 정부가 책임져야 할 프로젝트로 모두 3940억 원(위엔)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총 투자수요의 56%에 해당한다. 이 자금은 주로 각 지방정부의 예산에서 충당되며 이는 도시건설유지보수비, 사회간접자본(예산 내 인플라 투자비), 하수처리비 및 쓰레기처리비 등으로 조달된다. 아울러 시장 메카니즘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자본을 유지한다.

「10차 5개년 계획 계획 기간(2001~2005)동안 중국은 三峽댐 건설, 南水北調사업(2001~2005) 三河三湖하수처리장 건설사업, 兩江四庫화력발전소 탈황설비공사 및 깨끗한 북경시 만들기 등의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 2) 기업 투자

산업오염 방지를 위해 총 수요의 44%에 해당하는 3060억 원(위엔)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부담한다. 이 가운데 신규 산업 프로젝트의 환경보호 시설을 위해 대략 1700억 원(위엔)이 필요하다. 새로운 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三同時"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는 바, 프로젝트 투자계획에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기존의 산업오염 프로젝트의 경우 대략 860억 원(위엔)이 필요하다. 기업은 자기자본 또는 은행대출로 이를 충당

한다.

오염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및 영업전환 또는 이전을 위해 500억 원(위엔)

이 필요하다. 국가의 관련 정책에 따라 자금을 조달한다.

기업의 오염방지 노력이 빠른 진척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중점 프로젝트 및 기술시범 프로젝트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에 대한 이자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 3. 중점 프로젝트

「국가 환경보호 10차 5개년 계획 중점 프로젝트」를 「중국의 그린 프로젝트(제2차)」라 한다. 그린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의 오염방지 및 생태보호 효과를 거두고 중점지역의 환경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한다. 「국가 환경보호 10차 5개년 계획 중점 프로젝트」는 약 1137개 항목에 걸쳐 2620억 원(위엔)이 투입되는데 그 중 수익성이 높은 10개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1450억 원(위엔)이 든다.

### 1) 「三河三湖」 하수처리장 건설 프로젝트

「三河三湖」 오수처리장 건설에 317억 원(위엔)이 필요

하다. 三河에 152개 하수처리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데 221억 원(위엔)이 들고 이로써 1일기준 1064만톤의 하수처리능력이 확보된다.

三湖에 29개 하수처리장 및 배관설비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96억 원(위엔)이 들고 이로써 1일기준 263만톤의 하수처리능력이 확보된다.

### 2) 三峽댐 건설지구 물오염 방지사업

三峽댐 건설지구 물오염 방지를 위해 146억 원(위엔)이 필요하다. 그 중 하수처리장 88개를 건설하여 1일기준 도시하수 집중처리능력을 187만톤 확보하기 위해 106억 원(위엔)이 필요하고 쓰레기처리장 69개를 건설하여 1일기준 쓰레기 처리능력 1.3만톤을 확보하는데 40억 원(위엔)이 든다.

### 3) 南水北調(東線)오염 방지사업

南水北調 수리사업의 수질기준을 3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해 하수처리장 73개를 건설하여 1일기준 하수처리능력 383만톤을 확보하는데 88억 원(위엔)이 필요하다.

### 4) 渤海 푸른바다 가꾸기사업

渤海 인근 도시(環渤海 도시지역)에 11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오제수의 집중처리능력 1일기준 93만톤을 확보하는데 16억 원(위엔)이 필요하다.

### 5) 「兩控區」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공사

「兩控區」내에 37개 석탄화력발전소 탈황설비 공사로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연간 105만톤 감축하는데 120억 원(위엔)이 든다.

### 6) 깨끗한 맑은 물, 맑은공기 복원 만들기사업

복원의 질적 환경 개선을 위해 536억 원(위엔)이 필요하다.

그 중 도시 대기환경 개선 프로젝트 2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208억 원(위엔)이 투자되어야 하며 21개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도관 배관공사로 1일기준 하수처리능력 208만톤을 확보하는데 117억 원(위엔)이 투자되어야 한

다.

### 7) 국가급 자연보호지구 및 생태기능보호지구 건설사업

70개 국가급 자연보호지구를 건설하고 長江, 黃河, 珠江, 淮河, 遼河 발원지, 洞庭湖, 陽湖, 松花江(嫩江)의 범람지역, 黑河유역, 塔里木河하류, 陰山北麓, 科爾沁防風固沙, 秦嶺 등 15개 생태기능보호지구 건설을 위해 30억 원(위엔)이 필요하다.

### 8) 위해유해폐기물 집하처리사업

8개 지역에 위험한 유해폐기물 집하처리장을 건설함으로써 연간 72만톤의 유해폐기물 처리능력을 확충하고 의료폐기물 집하처리시설 113개를 건설하는데 195억 원(위엔)이 필요하다.

### 9) 국가환경감측망 구축사업

대기 및 산성비 감측망, 지표수 감측망, 해양환경 감측망, 생태환경 감측망, 방사능환경 감측망, 핵 응급센터, 전국 주요 오염원 온라인 감측 시스템 등 전국적인 환경 감측망을 구축하고 위성데이터전송네트워크, 주요유역 斷面 수질 예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 및 재해 감측용 3호 위성의 개발 및 발사, 이와 관련된 지상 관제시스템을 확충함으로써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한다. 이들 국가 환경감측망 구축사업에 25억 원(위엔)이 필요하다.

### 10) 환경과학기술 개발사업

환경 관련 과학 소프트웨어, 환경오염 및 보건, 청정생산라인, 원격위성응용기술 및 환경감측, 주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기술, 생태환경보호, 핵 안전 및 방사능 관련 과학연구, 환경보호 첨단기술 개발 등 8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위해 13억 원(위엔)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10가지 중점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물론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사업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 실수요자 만나

# 마케팅 효과 극대화

**한**경부에서는 지난해, 7월 중국북경의 「한국·환보기술전시청」을 개관하고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작년도 하반기에 8건 17억 수출, 2002년 1/4분기에 21건 106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환경산업의 중국진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오는 7월 4일(목)부터 7월 5일(금)까지 중국 북경에 소재하는 평민국제호텔에서 한국환보기술전시청 개관 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중 환경산업 투자포럼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는, 양국간 환경기술 교류 등 환경산업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국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환경산업 육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환경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환경산업협회의 공동주관(중국 측 주관: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中華大 및 국전노 교수과학기술개발연구원)으로 개최되는데 첫째날인 7월 4일은 환경산업협회주관으로 전시청 개관 1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투자포럼 개최식, 한·중 환경기술(대기, 폐기물, 토양오염복원, 환경기기 및 약품분야)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5일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주관으로 양국의 상하수도분야 기술설명회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한국측에서는 환경관리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에서는 국가환경보호총국, 건설부 중국시정공정협회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행사의 참가대상으로는 양국 정부, 학계, 금융계, 협회, 업체 관계자 등 250여명으로, 한국 측에서는 환경부 차관, 환경정책 국장, 환경경제 과장, 수도정책 과장, 환경경제과 담당사무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를 비롯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산업협회,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상하수도학회 하수도연구회, 수출입은행, 조흥은행 등 협회, 학계, 금융계관계자, 그리고 국내소재 환경산업체(20개 업체)등이 참석하게 되고 중국 측에서는 국가환경보호총국 부국장, 환보산업협회, 칭화대 환경공경제, 환경시설유한공사, 환경산업체관계자등 2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또한, 이번 한중 환경산업 투자 포럼에 참석하는 국내 기업들 중 창민테크 김홍기(40) 이사는 중국 포럼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김이사는 "처음으로 상하수도 제품을 가지고 나가는 공식 행사로 중국 현지 관계 공무원들과 만나 제품을 설명하는 마케팅 효과가 무엇보다 높다. 또한, 국내 수처리 기술을 중국 현지에 인식시키는 장이기도 한 동시에 중국의 상하수도 관련 계획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현지 공무원들에게 직접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며 한·중 환경산업 투자포럼에 적극적인 호감을 나타냈다.

## 중국진출을 위해 기업이 할 일



### (1) 중국경제와 시장특성 분명히 이해해야

중국에서 성공하거나 선전을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체로 실패의 건배보다는 실패의 쓴잔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우리기업들이 실패하는 주요 요인은 우선 준비가 안된 실력은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중국의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진출 전략도 없이 게다가 웬만한 중국어조차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에 만난 한 중국진출 기업은 "대화도 안되고 중국의 실상을 거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남들이 갓쓰고 장에 가니 나도 따라간다는 식으로 중국진출을 하려는 것을 보니 답답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더라" 본인은 가족과 함께 주거를 옮겨 중국대학에 입학해 중국어도 배우고 현지인들과 교분도 쌓고 장기적으로 사업에 대비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까지는 어렵더라도 제품을 팔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전정보나 지식 그리고 시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야만 그나마 겨우 명함을 들이밀 수 있을 것이다.

과거 80~90년대에 우리나라에 환경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또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한국시장을 먼저 공략하고 그 후에 그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아시아

시장으로 가지는 외국환경업체들이 많이 몰려왔던 적이 있었다. 이때 외국인이나 한국인 교포들이 한번 와서 명함과 카타로그를 주고 제품 설명한 후에 자기나라로 귀국했다가 몇 달만에 가끔 오거나 갑자기 연락해 만나자고 해서 상담을 해보았으나 실제 구매나 비즈니스가 성사된 적이 없었던 기억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을 거꾸로 반추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 꾸준함, 언어의 소통,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추어야만 아마도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기업인들은 중국의 엄청난 인구,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막대한

기대감, 무조건적인 자신감 등 잘못 판단하고 많은 오류와 실수 그리고 아까운 재화를 낭비한 경험이 많이 있었다.

또한 중국진출을 일급비밀사항으로 여겨 쉬쉬하면서 기업혼자서 제대로 된 검토없이 단독 진출하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시장의 특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넓고 넓은 대륙에서 유통망은 어떻게 관리할지? 가장 이상적인 Local Partner는 어떻게 선정해 교육하고 중국 특유의 대리점은 어떻게 관리하고 기술복사에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중국 경쟁자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조사하고 분석한 후 작전계획을 세워 임해야 한다. 즉 중국을 이해하고 몸으로 느끼며 제대로 된 제품으로 승부 해야만 중국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 중국 진출 시 체크 포인트

전문가들은 중국에 투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 ① 임금은 정말 완가?

명목임금은 한국의 1/8, 1/10 이지만 의무 부담인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면 1/4에 이른다. 또 대도시에서는 임

금이 매년 10% 이상 오르고 있다.

#### ② 공장설립

개발구의 임대공장을 이용하면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각종 민원도 개발구측이 해결해 준다.

#### ③ 입지선택

상하이보다 북쪽은 대체로 부자유지에 적극적이다. 남쪽은 소극적이지만 내수경제가 발달해 있다.

#### ④ 과실송금

세금을 잘 내면 본국으로 이윤을 송금할 수 있다. 단 일부 지방에서는 근거없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 ⑤ 세무·통관

비과세에서 과세대상으로 바뀐 것이 많다. 통관시에는 세관원들의 말이 곧 "법"인 경우가 허다하다.

#### ⑥ 유인책에 현혹되지 말 것

중국 공무원들은 투자를 유치하려 향응까지 베풀다. 이때 제시하는 지원책 등이 사실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⑦ 중요문서에는 서명을 해 놓자

중국정부 관계자들의 서명이 가장 확실한 공증이다. 계약서를 만들 때 서명을 받아 놓으면 뒤탈이 없다. 그리고 만일을 위해 중국어와 영어로 된 복수 계약서를 만들어 문제 발생방지의 2중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 ⑧ 원·부자재

사용하는 원·부자재가 수입허가 품목인지 확인해야 한다. 아직도 일부 중국산 원·부자재는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힘들다.

#### ⑨ 자금조달

중국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은 쉽지 않다. 긴급자금수요에 대비해 투자금의 3배 이상의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한다.

#### ⑩ 내수판매

법상으로는 중국밖으로 수출은 않고 내수판매만 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중국에 제조시설이 있어야 내수 판매를 허용한다.

### (2) 현지화 할 수 있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만 진출해야

우리의 일부 사고 중에는 중국을 아직 후진국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중국의 농촌이나 개발이 안된 서부 오지 등을 본다면 그 말이 맞다고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은 첨단기술과 우수한 품질, 최상의 서비스가 아니면 그곳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게된 상황에 도달했다고 본다. 선진국들의 경쟁적인 생산과 판매 그리고 나날이 높아지는 고소득층 그리고 매년 수백만명에 이르는 해외유학과 등의 귀국 등으로 중국은 급진적으로 최고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국가화 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고와 시각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고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무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80년대 중반 중국에 진출해 한때 고전했던 코카콜라는 맛만 빼고 모든 것을 중국식으로 달바꿈 한 후 지금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 그만큼 기술과 Brand name, 그리고 완벽한 현지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된다.

또 하나 중국에는 한국회사의 CEO 또는 최고의 능력 있는 임·직원이 가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 지금 중국은 유능한 인재양성에 열심이고 스카우트전이 뜨겁다. 해외 유학파들의 유턴도 한창인데 이들과 혈상하고 사업을 논하려면 회사의 최고 엘리트가 아니면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환경업체 중국 진출을 하려는 업체는 대체적으로 국내에서 기술능력을 확보한 수준의 기업들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술적 확신이 없거나 어중간한 기술을 가지고 중국진출을 하려고 한다면 아예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기술적 비교우위가 없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으므로 시간, 돈, 정력만 낭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환경기술과 우리기술과는 격차가 있고 우리는 그 동안의 시행착오와 값진 경험이 있으므로 기술·업종별로 2~7년간은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점하며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다고 본다.

기거여다가 중국에서 가격경쟁을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백전백패할 것이다. 저가의 중국산과 고품질의 선진국 제품의 틈새에서 가격경쟁은 차멸의 길이 될 것이다. 가격보다는 당분간 모방할 수 없는 기술, 납기준수, 신용 등으로

승부를 걸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 (3) 제대로 된 파트너 만나야

약 10년전 미국의 저명한 소각로 회사의 국내 판매 대리점 계약을 하고 그 회사의 매니저와 주한미국대사관 상무참사관을 만났을 때 미국 매니저가 "한국에서 환경비즈니스를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나"고 의견을 구하니, 그 참사관 대답이 "한국에서 사업내용을 가장 잘 알고 Active한 Agent를 구해 그에게 모든 걸 상의하고 협조하며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당시나 지금이나 그 말은 정확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현지생산이나 합작투자를 해도 유능한 현지인과 파트너를 만나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도 이 원칙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파트너로 나타난 중국업체에는 급히 날조되었거나 사기성이 농후한 브로커 기업들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광활한 중국진출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대로 된 파트너 찾기와 만나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현지선발전출기업을 통한 소개나 정보입수, 주 중국 환경주재관 면담, 중국환경보호협회 등의 접촉, KOTRA 등 무역지원기관의 협조와 광고 등을 통한 공모와 아울러 당의 간부나 공무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나 소개를 받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과거의 우리민족이었던 조선족의 활용이나 중국에 유학가서 현지에서 일하는 유학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파트너십 확보 방안이라고 하겠다. 자료에 의하면 베이징 소재 4년제 대학의 한국인 졸업생만 매년 200명이 배출되는데 여기에 석. 박사 과정까지 합한다면 중국에서 일할 수 있는 보조파트너의 수는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의 경우, 중국에 있는 국내 유학생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국내 기관 및 대기업의 고급업무는 한국에서 파견된 사람끼리, 기타업무는 조선족

과 현지인에게 맡기는게 통례이다. 그러므로 아직은 보조적으로만 활용될 뿐이나 점차 이들 유학생 출신이 좀더 고급업무를 맡고 경험을 쌓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4) 중국비즈니스 전문가 과정과 중국어 준비

전문가를 고용하여 현지에 투입하거나 중국담당 임원을 영입할 수 없다면 회사의 CEO나 임원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전에 국내에 개설된 중국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에 입학하여 수개월간 준비를 하고 중국 관련 비즈니스에 나서는 것도 매우 유익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국내에는 수개의 중국관련 CEO나 전문가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배경-외대 차이나 CEO과정, 중앙대학교의 중국경제 전문가 과정, 그리고 전경련의 중국 비즈니스 전문가과정 등으로 실 교육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이고 교육비용은 대개 300만원 내외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투자환경 연구 및 시장진출, 중국비즈니스 관련법규 및 제도, 중국현지경영 환경 및 경영전략, 중국과 중국인의 이해, 지역연구, 중국 현지인수와 특강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상대를 알고 접근하는 준비자세야말로 비즈니스의 기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외국과의 비즈니스에는 영어 또는 현지언어 구사는 기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엘리트나 젊은층이 아니면 영어가 통용되지 않는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적어도 중국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정도는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현지에서 말하고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사업정책에 가속이 붙게 될 것이다.

사실 1명의 중국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중국인과 기본적인 언어 소통이 가능하려면 최소 1년 이상 중국현지에서 투자해야 하며 비즈니스가 가능한 정도의 유창한 실력을 원한다면 그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 (5) 실패사례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몰려들지만 자기가 실패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초기에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 시장 환경 탓도 있지만 경영자나 한국직원들의 잘못도 많다고 한다. 지금은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90년대 초기 진출 기업들의 공통점은 「중국을 후진국으로 깔보고 인건비나 줄이고, 구형 국내 설비 들여다 돈벌자」는 심리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중국진출에서 확실히 망하는 방법으로는 기술이 필요 없는 업종, 인건비만 노린 진출, 돈을 과시하는 기업인, 중국인을 벌서하는 언어를 낱말, 한국생활 수준 고집, 조선족 동포 바꾸 대하기, 여중업원의 성희롱, 지역공무원과 불화 등의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할 일이다.

#### (6) 단독투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합자형식으로 회사를 세웠다가 중국측 파트너의 농간으로 회사를 빼앗기고 거의 맨손으로 나왔다는 사례도 가끔 접할 수 있다. 이런 우려와 싸움으로 날을 지새다 보면 사업 자체가 안될 수도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만 잘한다면 아예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단일 합자를 할 경우에는 경영방식이 합리적인 선진국 기업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집약적이고 기업규모가 중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합자가 유리하다고 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중국 및 동남아 진출을 하려는 기술력 있고 중규모 이상 환경업체의 경우라면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나 선진국의 환경전문업체와 동반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우선 외국기업과 같이 진출하면 Risk도 분산시킬 수 있고 기술이나 관리방식도 배울 수 있으며 참여한 Project 외에 다른 Project나 제3국 진출도 추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적으로 제안한다면 한국의 단일기업들이 제각각 진출해서 실패사례가 많았던 만큼 기술이 중복되지 않는 업체끼리 컨소시엄을 형성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수주 전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Collaboration Package 전

출방식을 검토해서 추진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로 세계적인 IT 기업들의 경우 사업과 기술의 Outsourcing과 Business Collaboration을 하여 성공한 사례를 많이 만들어낸 실화가 많다. 우리도 못해낼 이유는 없다고 본다.

#### (7) 현지 실정에 맞는 관리체계 도입

앞에서도 로마법 이야기를 한바 있지만 현지생산과 경영의 경우 현지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사례나 제도를 먼저 인지하고 현지 스탭들과 잘 검토하여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도 급여체계가 기본급+초과 생산수당을 지급하는 정충형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나 실적급, 라인별 성과급제 같은 제도를 주어 몇몇 한국기업들이 효과를 보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철저한 직무교육과 구체적인 업무관리시스템을 숙지케 하고 자율적 근무 지침을 만들어 생산성을 올리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외상판매 대금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민중성도 있지만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더 늦게 지급한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설치한 장치가 검수가 안되어 1년씩이나 지급기일을 늦추거나 계약서에 사소한 사항을 트집잡아 매수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부의 허가나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 기약없이 기다리는 사례들이 많다.

다른 외국계 기업도 한 두 번씩 이런 경험을 한 후 아예 현금거래만을 하고 있으며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사업 아이템을 확보한 기업에게는 중국측 파트너가 돈을 써주고 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위의 사례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판매가 가장 중요하지만 수급이 안된다면 더 큰일이다. 비야호로 중국에서도 사업의 위기관리(Risk management)기술이 요구된다 하겠다.

<자료제공 : (주)컨테크>

## 상하수도 산업

# 중국 진출 지원사업 전개

급속한 산업화의 여파로 도시 및 공단 지역의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은 2008년 북경 올림픽 개최 준비 등 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2001년 12월 "국가 환경 보호 10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원화로 약 59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환경 개선 투자에 착수하였으며 거대한 환경 시장이 조성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 나라의 환경 시장은 물론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2001.12.11)으로 시장 여건이 개선, 개방됨에 따라 구미, 일본 등 선진국들이 다투어 중국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우리 나라의 상하수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기업 회원의 지원을 목적으로 중국의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여 국내 상하수도 사업장의 시설견학, 기술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 나라 상하수도 관련 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련 기업의 중국환경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우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2002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5일간 북경시 시정관리 위원회, 북경시 승문구 관리위원회, 북경 정우환경 공정과학 기술 공사 관계자 등 11명을 초청하여 탄천하수처리장, 남양주축산 폐수처리설비, 오산하수처리장 등을 견학하고 관련 처리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 한국상하수도협회 사무실 이전 계획

우리 협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1가에 위치한 대현산 폐수지내의 사무실을 오는 9월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전)국립환경연구원 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협회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이미 환경부로부터 국유재산 사용 수의 허가를 받았으며 건축, 전기, 설비 보수공사 등 건물 전반적인 수리를 위해 불광동 사무실 임주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설 보수를 위한 세부 추진 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불광동 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 예산은 회장 기관인 서울특별시와 수석부회장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에서 각각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